



박태원 교수의

불교로 보는 인생

15

살법을 듣고자 위싱턴 광장을
꼭 메운 미국인들, 배우 리처드기
어의 열렬한 신심, 달라이 라마로
인해 생겨나는 신선한 풍경들이
다. 몇 해전, 한 TV에서 그의 일
상을 담은 특집을 본 적이 있다.
그 한 장면. 이른 새벽 잠선 시
간, 홀로 앉은 그는 만다라를 쌓
으면서 관(觀)을 행하고 있었다.
일종의 행선(行禪)이다. 전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평소대
로 공부하는 그의 모습과 분
위기는, 결코 법상적이지 않은 수행력
으로 꼭 차 있었다. 그는 언론과
소문이 떠돌아, 그래서 실제보다
과장되기 일췌인 유명인들과는
분명 다른 격(格)을 지니고 있었다.

익었음을 살피신 부처님이 제자
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발 앞서
숨으로 들어가신다. 부처님을 발
견한 앙굴리말라는 길을 휘두르
며 부처님 뒤를 쫓지만, 어쩔 일
인지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사문아, 거기
서라!" "여래는 이미 서 있건만,
그대가 서지를 못하는구나." "그
게 무슨 말이냐?" "여래는 생명
죽이기를 그치고 우주적 자비와
지혜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나
그대는 살인하여 자비심을 버리
고 자신을 돌보지 못하니, 서있지
를 못하는구나."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진심을
쏟으며 털썩 주저앉았다. 조금 전
까지 불타오르던 강한 살기는 부
처님 몸에서 발하는 자비의 힘
앞에 흔적도 없이 사그라져 버린
다. 마치 빛 앞에서 사리지는 어
둠처럼, 그렇게 제 정신이 든 그
대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고, 단기간에 아라한의 경지
에 오른다.
부처님은 자비의 넘(念)을 계발
하는 수행을 살피신다. 자애관(慈
愛觀)이 그것인데, 해탈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다른 한 장면. 달라이 라마를
친견할 수 있는 날, 그의 거처 문
밖에는 새벽부터 물러온 사람들
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특
히 서구인들이 많았는데, 잠시 후
문 밖에 나와 선 달라이 라마 앞
으로 한 사람씩 나아가 잠시 손
한번 잡고 합장하고는 곧 뒷사람
에게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다. 그

달라이 라마의 감화력

렇게 잠깐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
고 막 그 행렬에서 나온 한 서구
여성에게 카메라맨이 다가갔다.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감동에 젖어 있는
그녀에게 왜 우느냐고 묻자, 그녀
의 대답. "나도 모르겠어요. 정면
에서 그 분이 웃는 모습을 대하
는 순간, 저절로 눈물이 터져 나
왔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정부 소신·용기 부족
진리 대면 기획 외면

참선법이다. 자비의 넘은 그 감화
력이 실로 크다. 증오·시기·질
투·원한·공격의 모든 부정·배
타의 기운은 자비 넘의 긍정·포
용 안에서 비로소 자연스럽
게 해소된다. 모든 생명은 본능적
으로 자비기운 앞에서 평안을 느
끼며 긴장과 왜곡과 억지를 준다.
달라이라마의 돌보이는 감화력
원천에는 분명 오랜 세월 지혜력
과 균형을 이루며 개발시켜 온
자비의 힘이 있는 것 같다.

달라이 라마의 방법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달라이라마는 미국
스파이' 라고 말파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 고귀한 수행인
의 감화력과 교감할 수 있는 진
리 대면의 기회(法緣)를 외면해
버린 것이다.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안목과 소신과 용기가 그
토록 빈곤층이었던 말인가. 그렇
다면 한민족의 비전은 과연 무엇
인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염불심으로 정토세계 만들자”

참물자의 길

염불수행 ⑤- 염불만일회 어제와 오늘

염불만일회는 염불수행의 뜻을
같이 하는 불자들이 1만일(27년
5개월) 동안 '나우아미타불'을
칭명하는 수행 결사 운동을 말한
다. 8세기경부터 현재까지 이어지
고 있는 이 결사운동은 전국의
사찰에서 행해졌으며, 그 역할도
개달음과 반성 및 국난 극복, 민
중의 위저 역할 등 시대와 상
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됐다.

이후 염불회는 전국에서 간헐
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건봉사 이
외의 타 사찰에 대한 기록은 거
을 채우지 못하고 회향됐다.
특히 염불과 선을 함께 중시하
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는 많은
사찰에 염불당(念佛堂)이 세워졌
다. 이와 함께 염불만일회를 개설
하는 사찰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
작하며 새로운 부흥기를 맞는다.
특히 건봉사와 망월사는 대표적
인 사찰이다.

98년 8월 6일에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과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이 주축이 돼서 맥이 끊어진
건봉사 염불만일회의 정신을 계
승하고 경제한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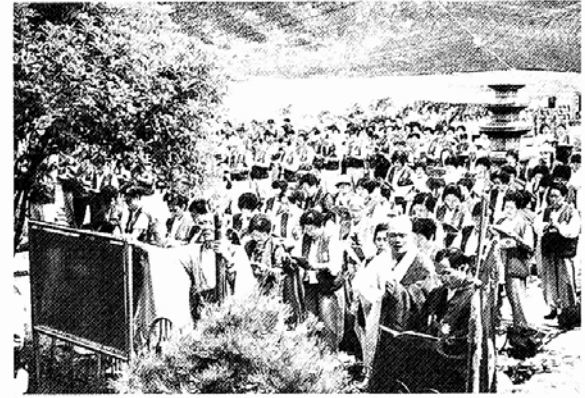
신라 경덕왕때 시작

함께 염불을 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염불회로 보는 견해가 많
다. 특히 이 결사에는 스님 31명
과 신도 1820명이 참여해 기도정
진 1만일 후인 787년(원성왕 3
년)에 회향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염불만일회의 맥이 한동안 끊겨
오다가 1802년(순조 2년)에 2차
만일회가 결성됐고, 1851년(철종
2년)에는 벽오유충 스님이 3차
만일회를 결성했으나 1863년(철
종 14년) 철종의 죽음으로 만일

Table with 2 columns: 사찰명, 전화번호. Lists various temples and their phone numbers.

조선후기 염불당 세워

함께 모여 염불로서 업장 소멸과
극락 왕생을 발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며 "염불수행에 관한
책도 출간 하는 등 창립 취지의
정신을 살려 40여년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98년 8월 6일에는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과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이 주축이 돼서 맥이 끊어진
건봉사 염불만일회의 정신을 계
승하고 경제한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



최근 염불만일 결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7월 대원사에서 열린 전국염불만일회 성지대회 장면.

으로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가
결성됐다. 특히 이번 모임은 불자
들이 참된 실천 수행의 길을 열
어가기 위해 신라시대부터 선지
식들이 지키고자 노력했던 평생
염불과 염불만일의 정신을 되살
려 올바른 염불심으로 자비와 복
덕을 퍼는 정토세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조직됐다.
전국염불만일회 3천여명의 회
원들은 각자 집에서 매일 오전
10시를 기해 '아미타불 정진
1000번' '아미타 48대원' 등을
칭명하며 수행하고 있다. 또 회향
일인 2025년 12월 21일까지 6월

현재 40여사찰 결사

과 8월 1년에 두 번 건봉사, 대원
사, 은해사 등 아미타 성지를 돌
며 법회를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봉사, 대원사, 담양
정토사 등 전국 40여개 이상의
사찰에서 염불만일 결사 회향을
위해 사시불공과 조석예불시 아
미타 칭명염불을 꾸준히 전개하
며 참물자의 길을 열어가는 실천
수행의 방편으로 정착시키고 있
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올초에 교계언론에서 선어록
의 해설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를 문제삼아 몇몇 분들이
알가알부한 적이 있었다. 필자
도 이 논쟁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선
과 언어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혀야겠다.
우선 살펴야 할 것은, 선에서
는 왜 그토록 언어를 문제삼는
가 하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하
면, 선에서 언어가 문제되는 것
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방편으로서의 언어가 문제되는
것이고, 선을 이미 체득한 사람
에게는 언어가 아무 문제될 것
이 없다. 선의 체득은 자성을 깨
달아 온갖 장애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언어의 장애로
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언어가 방편으로서 문제되는
것은 이미 부처님에게서 범천권
청의 설화로 나타나고 있다. 생

각으로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법
을 깨달은 부처님은 그 법을 사
람들에게 말해주어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 미묘법을 설명할
방법을 두고 고심했던 것이다.
중국 당나라 육조혜능의 문하에
서 성립되고 현재 우리나라 조
계종과 태고종으로 계승되어 있
는 조사선에서도 이 점은 마찬
가지이다. 조사선의 특징을 나
타내는 표어가 교의별전·이심
정심·불립문자·직지인심·견
성성불인데, 여기서도 분명 언
어를 문제삼고 있으며, 또 이들
은 모두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
을 전하고 받는 가르침과 배움
에 관한 언급이다.
그러면 가르침과 배움에서는
언어가 왜 문제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가르치고 배우
는 행위는 언어를 수단으로 하
여 이루어지면서서도, 가르치고

언어로 배우지만 언어 넘어서야 견성

37 선과 언어 (1)

배우는 목적은 언어를 넘어서고
자 하기 때문이다. 언어를 넘어
선다는 것은 견성하여 해탈하는
것을 말한다. 견성이란 우리가
상(相)으로 경험하는 세계의 성
(性)을 바로 아는 것이고, 세계
의 성을 바로 알게 되면 세계로
부터 자유롭게 된다. 즉 범부는
세계에 구속되어 있지만 부처는
세계로부터 해탈한다. 세계로부
터의 해탈이란 곧 언어로부터의
해탈이기도 하다.
선에서 가르침과 배움이란 위
의 표어에 나타나 있듯이, 마음
을 바로 지적해주는 스승의 행
위와 그것을 계기로 한 제자의
견성 체험이다. 마음을 바로 지
적해주는 스승의 행위가 반드시
언어를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만남과 의사소통에서 주
요한 수단은 역시 언어이므로
스승과 제자의 만남에 언어는
반드시 개입되는 것이다. 더구

나 제자는 아직 언어
의 성을 바로 보지 못
하고 있으므로, 스승
이 비록 언어(相)를 넘
어 마음(性)을 바로 지
적해주어도 제자는 여
전히 언어의 테두리
속에서 이해하려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언어가 문제되는
것이다. 스승은 언어의 자성을
바로 보아 언어에서 해탈하기를
가르치지만, 상(相)으로서의 언
어를 익혀온 제자가 상의 벽
을 넘어서 성을 본다는 것은 쉽
지 않은 일이다.
요컨대 선에서 가르침과 배움
의 목적은 스승에 의한 성의 직
지(直指)와 제자의 견성체험으
로 달성되는 것이지만, 성은 상
을 통하여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만을 익혀온 제자가
언어의 상을 통하여 언어의 성
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바

로 이 점에 선의 실
천에서 언어가 문제
되는 까닭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문제는
언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범부는
세계를 상으로만 인
식하기 때문에 직지
의 방편으로 무엇을
이용하든(‘할’이든
‘방’이든 어떤 무언
(無言)의 행위이든) 범부로서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보면 선에서 언어의
문제란 결국 견성 체험에서 부
닥치는 보편적 문제의 한 단면
일 뿐이고 언어만이 가진 특수
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인
간의 가르침과 배움에서는 언어
를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하므
로 언어를 더욱 문제시하는 것
이며, 더구나 문자로써 선을 설
명하려는 경우 문자라는 상을
가지고 어떻게 선을 드러낼 것
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언어가 더욱 문제시되는 것
이다.



김태원
부산대 강사·철학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Includes book covers for '천수경 천수신앙', '생활속의 기도법', '영가천도', '지장보살본원경', and '지장신앙 지장기도법'.